**- 손무(孫武) 저-**

- **1. 시계(始計) – 전쟁 전, 반드시 따져라**
  - 전쟁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일.
  - 승산을 따지기 위해 '도(道), 천(天), 지(地), 장(將), 법(法)' 등 5가지 요소와 7가지 비교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.
  - 적을 속이고, 철저히 현실적으로 판단할 것.
- **2. 작전(作戰) – 전쟁은 속전속결**
  - 전쟁의 경제성과 신속함을 강조.
  - 장기전은 국력 소모가 크므로, 빠르게 끝내고 적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.
- **3. 모공(謀攻) –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**
  - 최선은 적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것(벌모), 다음은 동맹을 깨뜨리는 것(벌교), 그 다음이 군사력 격파(벌병), 마지막이 성을 공격(벌성).
  - "지피지기 백전불태(知彼知己 百戰不殆)"의 원칙.
- **4. 군형(軍形) – 이길 수 있는 태세부터 갖춰라**
  -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조건과 태세를 갖춘 뒤 전투에 임해야 함.
  - 패배하지 않는 것이 우선, 승리는 그 다음.
- **5. 병세(兵勢) – 세(勢)를 활용하라**
  - 정공(정면공격)과 기공(기습공격)을 상황에 맞게 조합.
  - 병력의 흐름과 기세를 극대화해 유리하게 이끈다.
- **6. 허실(虛實) – 적의 약점을 찔러라**
  - 적의 강점은 피하고, 약점(허실)을 공략.
  - 주도권을 잡고, 집중과 분산을 적절히 활용.
- **7. 군쟁(軍爭) –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라**
  - 전투에서 지형과 위치를 먼저 차지하는 것이 중요.
  - 우회와 기동 등 다양한 전술로 주도권을 확보.
- **8. 구변(九變) –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라**
  - 다양한 상황(구변)에 맞춰 임기응변이 필요.
  - 장수는 유리한 조건(오리)과 위험(오위)을 잘 구분해야 함.
- **9. 행군(行軍) – 이동과 진영, 정보에 주의하라**
  - 행군과 주둔 시 적의 동태, 지형, 병사들의 상태 등 정보 수집이 중요.
  -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대비해야 함.
- **10. 지형(地形) – 지형을 읽고 활용하라**
  - 다양한 지형의 특성을 파악하고, 아군에 유리하게 이용.
  - 지형에 따라 전략과 전술을 달리해야 함.
- **11. 구지(九地) – 아홉 가지 지형, 그에 맞는 전략**
  - 전장에는 아홉 가지 지형이 있으며,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이 있다.
  - 빠른 기동과 주도권 장악이 핵심.
- **12. 화공(火攻) – 불을 이용한 공격법**
  - 화공(불공격)의 다섯 가지 방법과 주의점 설명.
  - 화공은 신중히 사용하고, 타이밍과 환경을 고려해야 함.
- **13. 용간(用間) – 정보전과 간첩 활용**
  -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.
  - 다섯 종류의 간첩(향간, 내간, 반간, 사간, 생간)을 활용해 적의 정보를 수집하고, 아군의 승리를 이끈다.